



2012. 10월

오인회 소식

모습없는 '그것'

누군가 내가 아끼는 차를 굶었다. 마음이 아프다. 그때 나는 나의 본성에서 벗어나 차가 된다. 그렇게 차가 되어 아픈 상태, 이것을 자아라 이른다.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는 진정한 나는 매순간 이렇게 무언가가 되어 '나타난다'. 본성이 드러난 것, '현상화 한 것'을 자아라 한다. 본성은 현상화해야만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될 수 있다. '나라'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

그것을 자아라 한다. 그러므로 자아는 다양한 모습을 띠고 '나타난다'.

자아로 '드러나지 않은 나', 그것을 진아라 한다. 진아는 무언가와 동일시되어야만 나타난다. 그래서 '드러난 모든 나', 즉 자아는 일시적 현상이다. 슬픈 영화를 볼 때 슬픈 '나'가 있고, 우스운 영화를 볼 때 우스운 '나'가 있다. 영화를 보며 울고 웃는 순간 우리는 슬픔이 되고, 웃음이 된다. 그렇게 자아는 '경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슬픔으로 나타나기 전, 그 웃음으로 나타나기 전, 아직 드러나지 않은 나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인가? 어떤 모습도 지니지 않은 '그것'은 무엇일까? 경험되는 그 모든 모습을 넘어 경험될 수 없는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채고자 한다면 매순간 '무언가가 되어 나타나는' 자신을 보라. 그리고 그렇게 나타난 모든 모습 뒤의 '모습 없는' 그것을 발견해보라.



- 越因 -

오인회 식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얻은 통찰이 있으
신가요?

- 소연**-알쏭달쏭한 인생 달이 집니다.
- 흰구름**-풍요로움을 일상화하라~
- 호명**-세상은 이미 완전하다.
- 산비**-영화를 나홀로 볼 때 자동 일어나는 경계막의 없음이 일상과 달라요~그때 몸의 생동감~일상에서도.
- 카이**-나의 팔을 굽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가? 구하는가?
- 푸리**-논리의 한계라는 것은 논리가 철저하지 못했기에 발생했음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논리가 나를 방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사용되었죠. 즉 지금까지 비논리적으로 논리를 사용한 것입니다.
- 필로**-"현대물리학의 상대성 원리가 정말 뜻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이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실 이야기하는 시간과 공간이란 것이 애초에 없다는 것이다. 단지 이름 붙일 뿐. 유명한 입자-파동 상보성도 마찬가지이다.
- 도널드**-이제 감정이 정신작용이라기 보다 육체적인 작용임을 알았습니다.
- 바람**-요즘 대승기신문을 들으면서 의타성법의 원리가 마음에 와닿았고 그래서 현상을 현상으로 느끼는 것이 근본을 확인하는 길일수 밖에 없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11월 10일(토) 함양 강의장 완공 기념식이 열립니다.

함양수련원이 많은 미내사 가족들의 관심과 후원으로 새롭게 문을 엽니다. 수련원의 준공을 기념하여 오는 11월 10일(토)에 조출한 잔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평화가 깃든 밥상 식구들이 재미있는 이야기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실 예정이구요, 원신 님의 무술 시범과 체험, 그리고 조이 님의 수피댄스와 전통무인 소고, 태평무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미내사 사무실(02-747-2262)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가비는 1만원입니다. (입금계좌 : 농협 053-12-130081 예금주 이원규)

제 6차 깨어있기 계절수업이 열립니다.

이번 6차 깨어있기 계절수업에서는 내분비계와 몸-마음의 연결성을 알아봅니다.

- 강사: 월인(越仁)
- 장소: 미내사 함양수련원
- 본강좌: 2012년 11월 24일(토, 오후 2시)~25일(일, 오후 3시)
- 수강료: 10만원(숙박비 포함) / 카드결제 가능
- 입금처: 농협 053-02-185431, 이원규
- 문의: 02-747-2261 / 010-9478-7222

2차 삶의 진실 100일 학교가 열립니다.

1차 100일 학교가 7월 18일부터 진행되어 무사히 마쳤습니다. 11월 12일부터는 2차가 진행됩니다. 정원이 3명인 관계로 2차에 참가를 원하는 분은 미리 신청해주세요. 2차에는 1분만 더 신청하실 수 있고, 그 후로는 3차에 신청되십니다. 1차에 참여하셨던 자연님의 후기를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홈페이지 주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www.herenow.co.kr/bbs/zboard.php?id=100dayschool&&no=1>)

홀로스 연구소 후원을 기다립니다.

10월에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달 후원내역을 알려드립니다.

- 허유님 컴퓨터 기증
- 이춘호님 8만 4천원 - 홀로스
- 썬이님 10만원 - 홀로스

후원안내

- . 홀로스 발기인 및 미내사 평생회원 : 200만원 (신한 110-175-014610 이원규)
- . 격월간 지금여기 회원 : 1년에 8만원 (전문회원), 5만원 (일반회원) (농협 053-12-130081 이원규)
- . 홀로스후원 : 자신의 형편에 맞게 매달 일정금액 불입 (200만원이 되는 시점에 발기인으로 전환가능)
- . 오인회 후원 : 자신의 형편에 맞게 매달 일정금액 납입 (농협 352-0406-2453-93 이원규)
- . 기타 상주인원 활동 후원 : 농협 352-0406-2453-93 이원규
- . 홀로스 후원 : 자신의 형편에 맞게 매달 일정 금액 불입 (200만원이 되는 시점에 발기인으로 전환 가능)
- . 오인회 후원 : 자신의 형편에 맞게 매달 일정금액 납입 (농협 352-0406-2453-93 이원규)



구름 인터뷰(상)

구름님은 금형설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며, 지난해부터 깨어있기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오인회 편집부에서는 구름님을 만나 그동안 깨어있기 공부를 통해 일어난 경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깨어있기와 만남, 그리고 변화

질 : 처음에 깨어있기를 어떻게 접하게 되셨나요?

답 : 아는 분이 저에게 깨어있기 책을 선물해주셨어요. 책을 쪽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주로 불교쪽 공부를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그 전까지 제가 알고 있던 공부에 대한 개념이나 수행 방식과는 전혀 달랐어요. 가령 저는 그 전에는 공부를 뭔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에 올라오는 걸 내려놓고 내안의 습이나 고정관념 같은 것들을 녹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거울에 묻은 먼지를 닦듯이 마음을 닦는 과정이 공부라고 생각했는데, <깨어있기> 책을 보면 그러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책에서는 그냥 어떤 실습을 해보고 그 실습에 따르는 체험이나 통찰에 의해서 바로 자기 본성을 깨우는 방식이 아주 체계적이고 정말 공감이 가게끔 적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충격이었죠. 그 동안 알고 있던 공부 방식과는 전혀 다른 과학적인 방식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책을 읽자마자 바로 수강신청을 했죠.

질 : 강의를 들으러 가셔서 연습을 해보니 어떠셨나요?

답 : 일단 주의에 대한 개념이나 주의에 주의를 보낸 다거나하는 연습이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었고, 주의를 통해서 내 의식을 자각하는 방식이 너무 신선하고 과학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질 : 그렇군요. 그럼 감지나 감각 것들은 어떻게 다가왔나요?

답 : 감지나 감각 부분은 처음에는 헛갈렸어요. 책에서 읽을 때는 감지나 감각이 팍팍 와 닿고 다 공감되어고 그러면서도, 실제로 감지나 감각에 대한 개념이

나 느낌을 잡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다시 들으면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후로 오인회 모임에 참석하면서 좀 더 감이 잡혔던 것 같아요.

질 : 주의 연습의 경우 어떤 점이 특히 와 닿았나요?

답 : 주의에 주의를 보내고 주의를 줄이고 하는 등의 연습을 하면서 '아! 내가 내 의식을 챙긴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보통 깨어있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의를 보내고 주의를 줄이고 하는 그 자체가 깨어있다는 거잖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가 주의를 조절할 수가 없죠.

질 : 그러면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휩쓸려간다는 말씀인가요?

답 : 그렇죠. 깨어있지 않으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같은 대상과 동일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이나 느낌을 대상으로 보고 거기에 주의가 가고 있음을 자각하면 그 자체가 깨어있기인거죠.

질 : 그러면 그런 연습이 깊어질수록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답 :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에 빠져들면 거기에 휩쓸리게 되고, 어떤 스토리 안에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에서 좀 더 자유로워진 면이 있어요. 가령 집사람과 부딪힘이 있었다고 할 때, 집사람에 대해서 혹은 부딪혔던 사건에 대해서 생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풀기가 어렵고 생각할수록 더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주의를 나 자신으로 돌리면 그러한 스토리에서 빠져 나오게 되지요. 주의 자체는 언제든지 실재하는 것이지만, 부딪혔다던지 다뤘다던지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현상으로 파악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스토리에서 그냥 저절로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질 :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충돌하는 경우가 줄어들거나 하나요?

답 : 그렇죠. 그래서 사실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졌죠. 가정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가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거 같아요.

질 : 그러면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이유는 어떤 스토리 라든지 그런 것에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인가요?

답 : 그렇죠.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그것이 어떤 스토리 일 뿐이라는 걸 자각하지 못하죠. 그리고 내가 그 스토리에 주의를 쏟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면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집착 없는 선택

질 : 일상생활에서 그런 변화가 있었다면, 오인회에 참석하시는 동안 공부 자체와 관련해서 뭔가 분명하거나 당연하게 다가왔던 통찰이나 체험이 있으셨나요?

답 : 글썽요. 기억나는 큰 통찰이나 그런 거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단 한번에 큰 통찰이 오기도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인회에 매번 참석할 때마다 그때그때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고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 당시에 걸려있던 부분들이 한꺼풀씩 벗겨진다고나 할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질 : 걸려있던 부분들이라면 주로 어떤 것들이었나요? 예를 들어 감정적인 문제에 걸려있었던 건지요 아니면 오인회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와 닿지 않거나 했던 건가요?

답 : 처음에는 일단 집사람하고 가족들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이 많이 걸려있었죠. 그런데 주의연습 같은 것을 통해 내가 그런 것들에 에너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수록, 그전에는 불만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가족들의 모습을 점차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되니 저도 편해지고 가족들도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마음 안에서의 어떤 갈등이나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진 거 같아요. 그밖에 걸려있던 것으로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뿌리 깊은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좀 더 오래 남아 있었어요. 가령 종교관이나 정치적인 견해 같은 것이 좀 늦게까지 남아있는거 같았어요. 그런 종교관이나 정치적인 견해 같은 것 역시 현상이라는 것을 알긴 알면서도 자꾸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죠.

질 :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답 : 그런 것들도 역시 현상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 어느 때에는 그게 그냥 현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역시 그저 내안의 고정관념일 뿐임이 보였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그냥 떨어져 나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오랫동안 지속됐던 고정관념 같은 것에서 좀 가벼워졌어요. 하여간 그냥 더 이상 문제가 안되게 되었어요.

질 : 그렇다면 그런 관념이 여전히 있다 하더라도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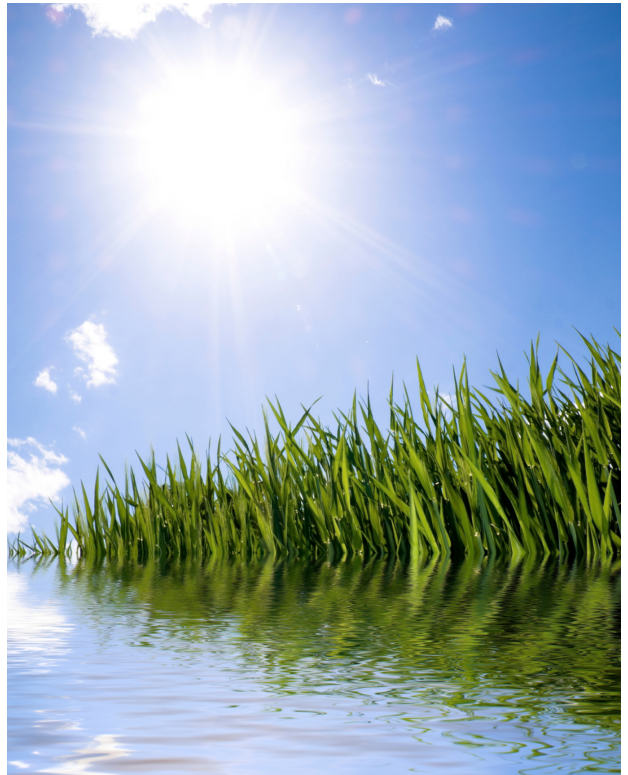
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답 : 그렇죠. 내가 뭐 하나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더라구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견해가 완전히 바뀌었다거나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령 선거 때 어떤 선택을 해야될 상황이면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도 그런 게 뭐랄까 옳다 그르다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냥 견해일 뿐으로 다가오면서 아무런 거부감 같은 것 없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느낌이에요.

질 : 특별히 내 견해에 집착한다거나 다른 견해를 배척하지 않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확실히 편해지는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요.

답 :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저 뿐만이 아니라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종교관이나 정치적인 견해 같은 것들이 상당히 뿌리 깊은 고정관념인 거 같아요. 그런 것들보다 더 뿌리 깊은 고정관념은 드문 것 같더라고요.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에서 빠져나오니까 일상에서 어떤 견해 차이로 인한 부딪힘이나 그런 게 없어지는 거 같아요.

질 : 그러면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견해 차이가 있거



나 할 때는 그걸 어떻게 조율하시나요?

답 : 그런데 견해 차이라는 게 그냥 생각일 뿐이고 내가 내 생각에 구애를 받지 않게 되니까, 내 생각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생각에도 구애를 안 받게 되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것을 견해 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만, 그냥 멀리 떨어져서 보면 내생각도 하나의 대상이고 다른 사람의 견해도 하나의 대상으로 느껴지니까 그런 것들이 그저 있을 뿐이지 충돌을 하지는 않죠.

질 : 그렇게 되고 나시니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전같으면 갈등이 있었을 법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답 : 일단은 나부터가 사람들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더 용화를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일단 나 자신부터가 어디에서 누구와 관계를 하든 편안해지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편안해지는 거 같아요.

감지와 믿음에 대하여

질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깨어있기에서 다뤄지는 내용에 대해서 여쭙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감지나 감각은 오인회에 참석하면서 점차 감이 잡혔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 : 감지나 감각은 연습을 많이 해서 감이 잡혔다든지 했던 건 아니고, 깨어있으려 하는 연습을 통해서 나중에 점차적으로 감이 저절로 잡혔던 거 같아요.

질 : 깨어있으려 하는 연습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그것이 감지나 감각의 감을 잡는 것과 어떻게 관련이 있었나요?

답 : 가령 저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보면, 그건 그때그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현상이라는 걸 많이 자각하면서 깨어있다는 것에 대해 감이 잡혔던 거 같아요. 감지나 감각이라는 용어에 얽매인다든지 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지 않고서도 그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감이 잡혔던 거 같아요.

질 : 그렇다면 계절 수업에서 언급되었던 믿음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얼마나 믿는지 자각하는 것과 그런 생각에서 믿음을 빼는 것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와 닿았나요?

답 : 저에게는 아주 유용한 연습이었어요. 저의 경우 정치적인 견해 같은 것을 현상이라고 여기면서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곤 했었는데, 그런 연습을 통해 내가 그런 견해를 얼마만큼 강하게 믿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그 믿음에 얼마나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를 자

각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었던 거 같아요.

질 :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주의와는 개념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특정한 생각에 주의가 많이 가게끔 하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답 : 자기가 강하게 믿고 있는 신념 같은 것의 경우 그것을 믿고 있다는 자각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자동으로

로 강한 주의가 가는 거 같아요. 그 이유는 오랫동안 그 신념에 자기가 계속 에너지를 투입해서 그게 내 안에서 하나의 중심이 됐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그 신념에 주의의 에너지를 쏟아부었다는 걸, 다시 말해 바로 내가 그 신념을 만들었다는 걸 자각하지 않으면 그 신념에 어떤 인력이 있어서 자동으로 거기에 주의가 집중되는 거 같아요.



질 : 그럼 믿음이라는 건 일종의 인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믿음을 발견한다는 건 어떤 신념이 엄연히 진실인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내가 에너지를 부여해서 그렇게 진실처럼 여겨지게 만들었을 뿐이라는 게 와 닿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까요?

답 : 그렇죠. 저의 경우 그런 믿음이 어떤 고정관념이나 그 밖의 다른 뿌리 깊은 관념에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나와 대상의 분열

질 : 그렇다면 다른 계절 수업에서 언급된 나와 대상의 분열과 앞서 이야기한 믿음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답 : 나와 대상의 분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분열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뿌리 깊은 고정관념 같은 것의 경우 일반적인 관념보다 주의의 에너지가 더 많이 투입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뿌리 깊고 더 강한 고정관념이 나와 대상의 분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질 : 나와 대상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믿음일 뿐이라는 말씀인가요?

답 :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의식하려고 주의를 일으

키지 않으면 어떤 분리감이나 분열도 없는 거죠. 내가 인식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내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어느 순간 느낌으로 와 닿았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세계나 우주조차도 다 내마음속에 있는 것이더라고요.

질 : 그런 점이 와 닿은 후로 뭔가 달리 보이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답 : 특별히 뭐가 다르게 보이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나와 대상의 분열이 마음속의 일이라는 데에서 더 자각이 깊어지고 보니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모든 일이 그냥 현상이라는 것이 와 닿았죠. 그러니까 이 물질 우주조차도 마음이 지어내는 실감나는 꿈일 뿐이고, 마음이 그 모든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마음만이 변하지 않는 실재이지요. 그러니까 나와 대상이라는 것도 마음에서 그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분열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마음에서 그런 인식작용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그런 분열이 있을 수가 없죠.

질 : 그런 점에서 나와 대상이라는 게 애초에 엄연히 나뉘진 게 아니라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일 뿐이라는 말씀인가요?

답 : 그렇죠. 그것도 마음의 착각이죠.

질 : 그렇다면 나와 대상이 쌍으로 나타난다는 말과 와 닿으시나요?

답 : 네. 대상을 대상으로 인식하는 그 자체가 나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나와 대상이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 마음에서 지어낸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이죠.

질 : 그렇게 보면 나라고 할만한 게 딱히 없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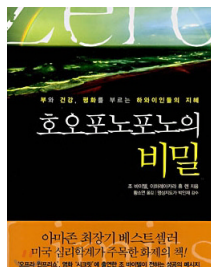
답 : 그렇죠. 나라는 것조차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니까요.

(다음 호에 계속)



구름님이 추천하는 책..

호오포노포노의 비밀: 부와 건강, 평화를 부르는 하와이인들의 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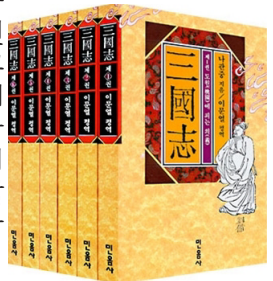
조 바이텔, 이하레아카라 휴 렌 공저/황소연 역/박인재 감수 | 눈과 마음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단순하면서도 마음을 쉬게 하고 정화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인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위의 네 마디를 되뇌거나 그 중 한마디만 되뇌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더 이상 생각 속으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의 집중 없이 입으로만 되뇌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 속으로 빠지지 않으면 마음은 쉬게 되고 지금 여기에 '있음'이 됩니다.

삼국지

나관중 저/이문열 역 | 민음사

삼국지는 나관중이 원작을 지었다고 하지만 읽어보면 실로 어느 한 개인이 썼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의 장대함과 다양함, 무궁한 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읽은 최고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국지는 3번 이상 읽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공감합니다.



장대한 역사의 스펙터클과 인간의 삶, 역사를 일구어가 는 모든 종류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열린 길을 못보고 막힌 길로 가는 어리석은 마음이 있는가하면 막힌 길에서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 열어가 는 지혜의 마음이 있습니다. 길이 막히는 것, 길을 만드는 것 모두 마음에 달려 있으니 막힌 길이 막힌 길이 아니고 열린 길이 열린 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대륙천하를 뒤흔들었던 모든 어리석고 지혜로운 마음들, 모든 영광과 모든 실패들조차 지나보면 허공에 한줄기 먼지바람 지나간 것과 다름없으니 무상할 뿐입니다.

또한 나의 삶과 이 시대를 돌아보면 이 삶 또한 한편의 드라마에 다름없습니다. 드라마가 끝나면 배우는 본연의 자기로 돌아가고 무대는 치워지지만 저는 다만 드라마 한편을 보았을 뿐입니다.



관성을 다루는 자는 누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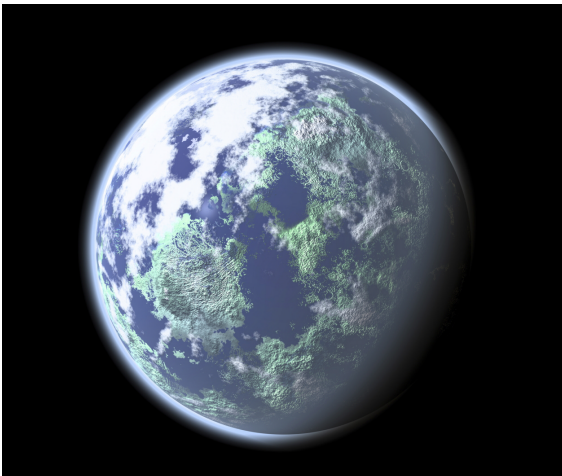
편집부

마음공부를 하다가 깨어남, 혹은 견성(見性)이 있고 나면 보임(保任)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인회에서는 이것을 관성을 다룬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번 호 소식지에서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해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인식한다는 것, 곧 나와 대상이 분열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곧 근본이 있다는 증거임을 알아 채고 나면 있음과 없음, 또는 앎과 모름을 떠난 그 자리가 언제나 항상 있어왔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면서 나와 대상이 동시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임이 분명해지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더 이상 애쓰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나의 본성을 보았다는 점에서 견성(見性)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견성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잘 지키고 간직한다는 뜻의 보호임지(保護任持), 즉 보임(保任)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들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견성을 통해 발견한 근본 자리가 일상의 삶과 다른 그 무엇이 아님을 실감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설령 근본 자리를 확인하고 나의 본성이 비어있음을 눈치챘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온 세월동안 쌓여온 습(習) 혹은 관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용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로 상대방이나 나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경우에 문제가 되겠지요). 또는 설령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로잡히지 않는 나' 혹은 '근본을 확인한 나'에 부지불식간에 동일시된 채 미묘하게 자신을 강화시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관성에 사로잡히거나 관성을 새로 만들어내는 일은 견성 전에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견성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견성 후에는 내가 부지불식간에 무언가에 빠져 그것을 주인으로 삼고 있음이 보다 분명하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어떤 것도 주인 삼지 않은, 다시 말해 어떤 것도 붙들고 있지 않은 자리를 견성을 통해 확인했기에, 무언가를 붙들고 있는 상태를 그 비어있는 자리와 비교해서 알아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조차 근본 자리의 당연함에 비하면 단지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채는 것이 우리가 나도 모르게(어찌 보면 마치 당연한 듯이)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부터 놓여나는데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눈치를 챌다고 해서 그런 습이나 관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물론 눈치를 채는 순간에는 동일시가 간파된 것이므로 바로 떨어져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또 동일시된 것을 알아채면 그 때 다시 떨어져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습이나 관성에서 자유로

워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그런 것들에 동일시되거나 동일시되지 않거나에 구애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간파한 사람은 이제 단순히 관성에서 잠시 떨어져 나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관성에서 자유로워지고자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습이나 관성에서 자유로워지려는 의도를 내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살펴보지 않는 한 관성을 다루려는 어떠한 시도도 궁극적으로는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그런 자'에 기대어 기존의 관성을 다루려고 한다면, 설령 그런 관성이 다뤄지더라도 '그 관성을 다뤄낸 나'에 다시금 동일시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를 하기 쉬운 이유는 나를 근본과 동일시하는 태도에 있다고 여겨집니다(사실 근본은 동일시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근본자리를 본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근본의 입장에서 관성을 다룰 수 있다고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근본을 직접적으로 체득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증득(證得)한 것이기 때문에, 관성을 다루는 것 역시 근본 자리에 선 누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이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성을 다루는 자는 누구인가

편집부

그렇다면 근본이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관성이 다뤄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그 관성을 '다룬다'고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저는 관성을 '껴안는다', 혹은 '그것과 하나가 된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루기를 원하는 관성은 주로 우리의 그림자일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원하는 나, 다른 누구보다도 우위에 서고 싶은 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슨 수라도 쓰는 나... 그런 나를 '다룰 대상'으로 놓고 한편으로는 '다루는 자'를 세워 놓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나와 대상의 분열 속에 빠져 있는 것이자, 일종의 비극입니다. 내면을 둘로 나누어 놓고 한쪽 편은 내가 아니라고 여기고 다른 쪽 편은 나라고 여기는 형국이니깐요. 그러나 반대로 그런 나의 그림자를 껴안고 그것과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나와 대상의 구분은 없어지고, 나와 그림자는 서로 녹아듭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 없는 근본 자리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온 자리에서 그 전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완전한 동일시가 곧 완전한 탈동일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그림자를 다루려는 '나'가 남아 있으면 그 그림자의 전부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그런 내가 없을 때에야 비로소 그 그림자의 전부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그 전부를 보았기에 이제 더 이상 그 그림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전부가 되는 일이 없어집니다. 비로소 그림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지요.

나의 그림자를 껴안고 그것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것을 더 이상 괴물로 보지 않고, 없애려 하지 않고, 다루려고 하는 대신에 그것을 인정하고, 충분히 느끼고, 수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인정하고 수용하는 주체가 있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체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단지 내가 그 그림자임을 철저하게 깨닫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것은 노숙자나 강도, 파렴치한, 살인자 같은 사람들의 입장과 심정을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그들과 똑같은 내가 있음을 분명히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수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를 초월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이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면, 한 번쯤 자기가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상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경우에는 지극히 인간적인 고통이나 상처 때문에 이 길에 들어섰을 테지만, 언젠가부터 자신이 그런 인간적인 차원을 떠날 수 있다고 믿게 되면서 나의 뿌리 깊은 고통이나 상처를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에게서 벗어나려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시도로 인해 더욱 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관성은 내가 다루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관성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저절로 다루어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연스럽게 주변 세상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겠지요. 그런 세상 역시 다 내 마음속의 일이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저 내 마음이 저절로 조화와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물이 저절로 물길을 찾아 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도(道)'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